

코로나19 확진자 65.6% 집단발생

산발적 발생·조사·분류 중 사례 34.4%... 대구는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사례 64.5%

전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65.6%가 집단발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0시 기준 확진자는 총 5328명이다. 전날보다 516명 늘었다. 전국적으로 확진자의 65.6%는 집단 발생과 연관을 확인했다. 산발적으로 발생했거나 조사·분류중인 사례는 34.4%이다.

지역별로는 대구 지역의 확진자는 4006명(75.2%)으로 가장 많다. 뒤이어 경북 774명, 경기 101명, 서울 99명, 부산 93명, 충남 82명, 경남 65명, 울산 23명, 강원 21명, 대전 15명, 광주 13명, 충북 11명, 인천 9명, 전북 7명, 전남 5명, 제주 3명, 세종 1명 순이다.

대구에서는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사례가 64.5%(2583명)로 가장 많다. 현재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접촉자 조사

과정에서 집단시설과 의료기관 등 중심으로 추가 확인해 조치 중에 있다.

서울에서는 성동구 소재 주상복합건물인 '서울숲더샵' 관련 확진자가 현재까지 12명 발생해 감염경로와 접촉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확진자 12명 가운데 입주민 2명, 관리사무소 직원 4명, 가족 접촉자 6명이다.

부산에서는 온천교회를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온천교회 관련 확진자는 부산 33명, 경남 2명 등 총 35명이다.

경기에서는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의 생명샘교회에서 확진자 6명을 확인했다. 지난 2월 16일 신천지 파천교회 종교행사에 참석했던 확진자가 용인시 소재 회사에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교육에 참석했던 직원 4명이 확진된 바 있는데, 그 중 1명이 2월 23일 생명샘교회 예배에 참석해 교회 내 전파가 발생한 것으로 방역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충남 지역에서는 천안시 운동시설인 줌바댄스를 중심으로 총 7개 운동시설 관련 확진자가 80명 확인돼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확진자 80명 중 강사 4명, 수강생 50명, 가족접촉자 등 26명이다.

경북에서는 신천지 대구교회와 청도 대남병원 외에 성지순례단, 철곡 밀알 사랑의 집, 경산 서리요양원, 김천 소년교도소 등에서 집단발생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전국적으로 65.6%는 집단발생과 관련된 사례로 확인하고 있다"며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어느 정도 감염원이나 감염경로가 확인되면 집단발병 시계열로 통계가 좀더 보완이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천지 신도와 관련해 의료기관에서 확인된 집단발병은 22건이며 그중 18건은 신천지 신도와 관련돼 유행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18세 새내기 유권자 홍보 캠페인송 제작

도서관위 직원 작사·가수 구피 재능기부로 곡 붙여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 투표하는 18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참여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캠페인송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대한민국 유권자라는 곡명의 이번 캠페인송은 선관위 직원이 직접 작사를 했으며, R&B 가수 구피(Goopy)와 그의 친구들이 재능기부로 참여해 곡을 붙이고 직접 노래를 불렀다.

곡은 청소년들에게 친숙한 R&B 리듬에 랩이 곁들여 있으며, 처음 선거권이 생긴 18세 유권자들이 밝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정책과

공약을 잘 살펴보고 희망을 담아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자는 메시지를 담겨 있다.

특히, 캠페인송은 "오늘은 무슨 날/투표하는 날/가족과 함께해/다함께 투표해"라는 후렴부는 쉬운 가사와 반복되는 멜로디 속에 경쾌함이 가미되어 있어 지루 따라 부르게 된다.

전북선관위는 캠페인송에 어울리는 뮤직비디오도 제작할 예정이다. 촬영은 한옥마을, 새만금 등 전북 도내 명소에서 이루어지며 특히 가수 구피, 고등학생, 일반 유권자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함께 참여하여

그 의미를 더할 전망이다.

캠페인송과 뮤직비디오는 각종 선거교육, 온라인 홍보 등에 활용될 예정이며, 음원과 영상은 많은 유권자가 즐길 수 있도록 전북선관위 홈페이지·유튜브에 5일부터 순차적으로 게시할 예정이다.

전북선관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의 홍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캠페인송이 새내기 유권자들의 자발적인 투표 참여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성기자

코로나19 극복 위해 11조7천억원 추가 투입

역대 4번째 슈퍼추경... 방역·피해극복 사업 집중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를 조기 극복하고, 민생경제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지난 2015년 메르스(MERS·중증호흡기증후군) 당시 추경안(11조6000억원)을 넘어선다. 액수로는 역대 4번째로 큰 '슈퍼추경'으로 코로나19 방역과 피해극복에 필요한 사업들로 채워졌다.

정부는 대규모 추경에 따른 적자 국채발행으로 재정건전성 악화가 자명한 상황에서도 사태가 장기화 돼 물이 키기 힘든 국면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대응을 지휘하는 대구를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된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추경안을 확정하고 5일 국회에 제출한다.

4일 오후 4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5000명(5186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32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확진자 90% 가까이 대구·경북지역에 집중됐지만 전국적으로도 유증상자가 속출하고 있어 전국 전파에 대한 우려를 한시도 지울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초기 4조원을 긴급 투입해 방역에 총력을 다하면서 업종·분야별 긴급지원대책을 추진했지만 신천지 교인들로 인한 대규모 확산을 막지 못했다.

지난달 위기경보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민생·경제 종합대책과 함께 16조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는 올해 513조3000억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쥐고도 전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에 본예산 인크가 채 마르지도 않은 1분기에 추경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었다.

전체 11조7000억원 중 ▲감염병 방역체계 보강 및 고도화에 2조3000억원 ▲민생·고용안정에 3조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에 2조4000억원 ▲지역경제·상권 살리기에 8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담당하는 감염병 전문병원과 산별진료소, 방역조치로 폐쇄된 의료기관의 손실보전을 위해 1조7000억원을 지원한다. 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와 자가격리자에 대한 유급휴가지원 등으로 5000억원을 투입한다.

감염병 대응 인프라 확충을 위해 현재 호남권에 1개소 뿐인 감염병 전문병원을 영남권과 중부권 2곳에 추가 건립하고, 120개 음압병실을 확충하고, 음압구급차 146대를 상반기 중 배치한다.

민생안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경제 활력의 모멘텀 사수에 중점 투자해 경기 하방리스크를 최소화 한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저소득층 138만 가구에 월 22만원(2인 가구 최대)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과 아동수당 대

상자 263만명에 10만원 지역사랑상품권을 상반기 중 사용하도록 지급한다. 노인일자리사업 참가자 54만명에게는 총 14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주는 등 이른바 소비쿠폰 5종 세트를 활용한 내수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회복을 위해 긴급경영자금 융자를 2조원 확대한다. 1%대 초저리 금리대출을 늘리고, 초저리 대출시 대출자가 부담하던 신용·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 보증료도 1년간 인하한다.

80만개 저임금 고용 사업장 근로자 230만명에게 4개월간 1인당 월 7만원 을 보조한다. 온누리 상품권 발생도 5000억원 확대하고, 1인당 구매한도도 100만원으로 늘린다.

지역경제와 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3조원으로 늘리고, 정부지원율도 두 배 상향한다. 지방재정을 보강하고, 교육시설 방역 등에 사용하도록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2897억원도 지원한다.

추경사업 중에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지역을 보듬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6200억원을 별도로 배정해 특별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재정은 늘 마지막 파수꾼이었다"며 "이번에도 재정이 코로나19의 거센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추경안이 초유의 감염병 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축된 민생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종이비행기 날리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4일 충북 청주시 공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68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해 졸업생들과 함께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부 "전국 어린이집 휴원 연장 논의... 오늘 방침 결정"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어린이집의 휴원 연장을 논의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교육부의 유·초·중·고교의 휴교, 개학연기 방침, 어린이집 그

리고 사회복지시설 등의 휴원 방침 연장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3일 전국 유치원·초·중·고교의 개학을 1주일 연기했고 지난 2일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2주 더 연기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실시된 전국 어린이집 휴원은 오는 8일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코로나19 전파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휴원 연장도 논의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된 내용을 이르면 5일 발표할 예정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내일(5일)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 결과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